

이대론 공장 가동 후 더 큰 문제...새판 짜 다시 시작해야

긴급점검 - 광주형 일자리

<3> 노사민정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난 2일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탈퇴를 선언한 이후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8일 긴급 주주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주총에서는 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시), 광주은행 등 37대 주주사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를 이끌어 온 광주시도 다음날인 9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운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등 노동계 대표, 광주상의회장 등 사용자 대표, 시민대표, 산업계대표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노동계에선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측은 주주총회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탈퇴를 선언한 노동계를 다시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첫 시작부터 반쪽짜리였다'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사민정 대화합이라는 전제로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일단 노측에서 민주노총이 빠졌다. 노사민정 중 '민' 측에서도 사실상 보수와 중도 정도로 분류되는 시민사회단체만 참여했을 뿐 진보성향이 강한 단체들은 불참했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 실험'이라는 결과물을 성공하게 얻어내려 한 정부의 조급증이 불러온 결과물이라는 게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노사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 공장 건설도 실적을 자랑하듯 '공정률 8%'를 운용할 것이 아니

조급증이 부른 예고된 파행

노동계 불참 정부지원 난망

현대차 확실한 의지 보여야

정부·민주당 중재 노력 필요

라,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노사민정 간 의견 불일치가 지속되고 현대차의 확실한 참여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장이 가동된 후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민정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반쪽짜리'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체'여야 하며, 특히 사측의 핵심인 현대차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 요소라는 지적이다.

지난 2일 협약 파기식을 가진 한국노총 광주본부도 "기존 노사민정 협약의 틀 안에서는 더 이상 협의가 없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며 새로운 시작을 전제로 마지막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2대 주주인 현대차는 여전히 '남의 일 대하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차의 태도 변화 없이는 노동계의 재참여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노동계가 끝내 불참하면,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돕기 위해 개정 작업까지 끝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 정책마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 보류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도 부담이다.

지역사회에선 결국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 열쇠를 현대차가 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시작을 주도했던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사태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7일 오전 전남 순천시 풍덕동 이랫장을 찾아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7일 오전 전남 순천시 풍덕동 이랫장을 찾아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을 지켜보는 광주시민의 실망감도 크다. 노동계와 현대차, 광주글로벌모터스 그리고 광주시 등 사업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노사민정 대화합'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극히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광주글로벌모터스도 사실상 현대차 생산 공장이 되고, 자칫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좀 더 디테일하게 새판 짜기와 새로운 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정부와 현대차, 민주당도 사업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 광주 후보들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광주 유치' 공동공약 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이 7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 유치'를 21대 총선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고, 센터건립을 위한 법률안 제정과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운영덕, 이병훈, 송갑석, 양항자, 조오섭, 이형석, 이용민, 민형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추진마차 공동 공약 협약서'를 통해 ▲ 21대 국회에서 가칭 국가폭력트라우마치

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광주 트라우마센터의 자연친화적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광주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의 아시아 허브센터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공약했고, 5·18 기념식을 통해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며 "센터 건립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광주는 2012년, 한국 최초의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시작했고, 한국 최초로 세계교문생존자재활협회(IRCT)의 가입인도 받았다."며 "지난 8년 동안 600여 명의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의 치유 및 재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광주가 국립센터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 거칠 것"

"시진핑 올 향한 입장 변화 없어"

청와대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자는 여야의 주장에 대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날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정치권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정권한을 가진 정

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해 당장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한편,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시 주석의 올해 중 조기방한 추진에 대한 양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방한 시기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선관위, 총선 투표 위해 코로나 자가격리 일시 해제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시 자가격리 해제 등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7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선거일이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만간 관련 대책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가 허용됐지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날 28일 마감되면서 이후 확진돼 자택에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투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선관위와 관계 부처는 시도 단위로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소 마련 방안, 선거일이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각 투표소에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오는 10~11일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한다. 운영 시간은 사전 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으로 투표소별 생환치료센터 내 격리 인원을 고려해 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빵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